

# 몸은 사람이지만 마음이 축생 같다면... 그는 축생이다

## 법석 향봉 스님

### 〈육조 단경〉에 담긴 수행결사

‘백양사 야단법석 수행결과와 스승을 찾아서 떠나는 길’ 첫 번째 강사인 향봉 스님은 8월 4일 2차에 걸쳐 〈육조 단경〉에 담긴 수행결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향봉 스님은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이 〈육조 단경〉을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지만 그 정신을 실천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향봉 스님은 “현대 지식인들이 불교를 외면하는 이유는 구참자에 대한 한국불교의 형식과 권위주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스님의 강론이다.

### 성철 스님의 ‘오매일여’를 비판하다

〈육조 단경〉 강의에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몇 가지 사실들을 짚고 넘어가겠다. 성철 스님은 스님의 저서인 〈선문정로(禪門正路)〉와 〈백일법문(白日法門)〉에서 오매일여(癡寐一如)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간화선을 참구하는 수행자들은 몽중일여(夢中一如)에서 가일층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 오매일여의 경지에 이르러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철 스님의 말씀은 제방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이런 가르침은 수행승들이 자가 점검하는 데 있어 매우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조금은 교정을 필요로 한다. 잘못된 수행관은 야단법석을 통해 지적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나만의 개인적인 수행력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경전과 조사어록을 근거로 밝히는 것이다.

성철 스님은 “수행자들은 낮에 깨어 있을 때나 밤에 잘 때나 똑같이 화두를 놓지 않고 생생하게 참구해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화두를 참구하고 있는 상태가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밤에 잠속에서도 들어야 하며, 만일 잠 속에서 화두를 놓치거나 망각, 또는 상실 한다면 그것은 아직 미완의 깨달음으로서 돈오(頓悟)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잘못됐다. 오매일여란 낯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능엄경〉이다. 〈능엄경〉 10권째에는 “생각이 다 없어지면 깨어있을 시 번뇌에서 자유롭고 잠을 잘 때는 망념에서 자유로워 낮과 밤이 한결 같다”고 기록돼 있다.

〈육조 단경〉에서 혜능 선사가 말하고 있는 생각의 자유, 모양에서의 자유, 머뭇에서의 자유가 곧 낮이나 밤이나 한결 같은 오매일여의 경지 일 터이다. 오매일여란 단어를 어록에 등장시킨 중국 문헌 선사나, 원근 선사, 그리고 간화선을 재창한 대혜종교 선사 역시 오(癡)와 매(寐), 보리와 번뇌를, 낮과 밤을 둘이 아닌 하나로 보란 뜻으로 오매일여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잠이 깊어 든 단잠 속에서도 화두가 일여한다면 그는 화두의 노예일 뿐 진정한 무념(無念), 무상(無相), 무주(無住)의 선지식은 아니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다. 낮과 밤에 따라 생체 리듬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누워 5분도 안 돼 단잠을 잘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수행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간화선의 수행자들이 오매일여의 잘못된 수행관에서 자유로워지기란 결코 어렵다. 화두는 마음을 모아가는 길라잡이일 뿐 깨달음에 이르는 열쇠일 수는 없다. 깨닫는 순간 화두마저 굳디디기일 수밖에 없다.

### 동서남북 중앙에 서있는 나...중도(中道)

부처님은 스승이요, 불교도들은 그의 제자일 뿐이다. 불교에는 선겨야 할 신(神)이 없는데도, 사찰의 현주소는 선겨야 할 신도 많고, 영험 있는 불보살도 부지기수로 널려있다.

부처님 역시 〈잡아함경〉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보다 나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개신교의 예수 역시 마태복음에서 “사람의 존재 이유는 행복추구”라고 정의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해 뜨는 곳은 동쪽이고, 해가 지는 곳은 서쪽이라고 말한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동쪽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서쪽이라고 봐야 하는가.

정답은 바로 모든 사람이 서 있는 현재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을 정한다. 그렇다면 동서남북 중앙에는 누가 있을까. 바로 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중도(中道)사상이다.

팔만사천경전의 핵심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연기법칙(緣起法則)이고, 둘째는 중도사상(中道思想)이다.

우리는 중도사상에 대해 좀 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중용(中庸)’ 사상과 불교의 중도를 혼용해 설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자사는 5가지 생활지표로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을 삼아도 했다. 하지만 이 5가지 덕목을 생활지표로 삼되, 넘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자사가 말하는 중용사상의 핵심내용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좌로도, 우로도 기울지 않는 균형과 조화를 불교의 중도로 인식하고 있다.

한 생각만 열고 보면 이 자리가 사바에도가 아닌 극락정토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天下 唯我獨尊)이라고 말했다. 팔만대장경을 원효는 다섯 자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로 표현했다.

중국의 임제 선사는 이르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라는 뜻으로 수처작주(數處作主)라는 말을 남겼다. 내가 어느 곳에 머물고 서있든 하더라도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만약 내 나이가 70세인데, 누가 인생 중 가장 황금기가 언제였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지금이라고 답할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일깨워 준 중도사상이기 때문이다.

부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생각의 윤회다. 몸은 사람이지만 마음이 축생 같은 사람은 축생이나 다름없다. 싸움과 전쟁을 일삼는 자는 아수라의 다투세계에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마음이



향봉 스님은... 동진출가해 1962년 사미계, 1967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불교신문사 편집국장·주필·주간·부사장을 역임했다. 조계종 총무원 조사국장 감찰국장 포교부장 총무부장 중앙총회 사무처장, 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조계종 경순단 초대단장과 청량사·보광사·내장사 주지를 지낸 스님은 인도 네팔 티베트 중국에서 15년을 머물기도 했다. 1973년 9월 〈현대사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저서로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겨울잠마〉, 〈움직이는 것은 아름답다〉, 〈사람의길〉 등 20여 권이 있다.

한국불교 외면 당하는 이유는 권위주의의 탓  
출가자는 재가자에 기와불사만 강요한다  
절 많이 지으면 뭐하나 속은 썩고 있는데  
한국불교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산다

닫혀 있으면 지옥이요, 열려 있으면 천국이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행복한 사람이요, 불만과 권태로움 속에서 허덕인다면 불행한 사람이다. 다부면 부족하고 사양하면 남는 법이다.

〈천수경〉은 정구업(淨口業)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구업을 설명하는데 있어 신(身), 구(口), 의(意), 삼업(三業) 중의 하나인 입으로 짓는 구업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코 밀의 입만이 입이 아니다. 두 귀는 듣는 입이요, 두 눈은 보는 입이다. 두 개의 콧구멍은 냄새 맡는 입이요, 배꼽 밑의 두 개의 생식기관은 배설하는 입이다. 사람 몸에는 아홉 개의 구멍이 있는데, 모조리 조심하고 길들여야 할 또 다른 입인 것이다.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며 욕설과 기만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은 어찌 코 밀의 입뿐이겠는가. 눈짓으로 말할 수 있고 얼굴 표정, 몸짓, 손짓으로도 얼마든지 금정도 부정도 표현할 수 있다.

부처를 절대 멀리서 구하지 말라. 육조혜능 역시 정도 극락세계는 마음이 열려있으면 바로 앉은 이 자리가 극락이라고 말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基心)이라는 말이 있다. 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거기에 마땅히 집착

하지 말라, 머물지 말라는 말이다. 하지만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즉, 이 말은 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마태복음에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 “두드리지 마라.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구하지 말라. 구하면 구할수록 마음이 힘들다.”

실천 수행을 으뜸으로 삼고, 깨달음을 이뤄 부처가 되는 것이 수행의 최고 목표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 생활이 곧 도(道)요, 평상심이 곧 극락이다.

### 〈육조 단경〉에 담긴 수행결사

육조혜능이 성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한 것은 단(斷)을 쌓아서 전했다는 것으로 성스럽다는 뜻이다. 대승부 경전인 〈육조 단경〉은 육조혜능의 설명이지만 돈황본, 덕이본, 종보본 등 성립 연대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수행자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설해진 것이 아함부 경전이라면, 부처가 돌아가신 뒤 500년 후에 만들어진 경전은 대승부 경전은 다양한 것으로 포괄돼 있다. 동행본 〈육조 단경〉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덕이본, 종보본은 드라마틱한 부분이 더해지고, 문장이 다듬어져 있다.

혜능은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요 착한 벗이다. 〈육조 단경〉은 깨달음에 이르는 아름다운 빛줄기가 가득한 안내서이다. 〈육조 단경〉은 승려의 가르침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인 경(經)으로 이름 붙여진 최초의 책이다. 〈육조 단경〉은 진리로 가득하고 막힘없이 열려있다. 단경은 생각에서의 자유(無念), 모양에서의 자유(無相), 머뭇에서의 자유(無住)를 가르치고 있다.

누구나 이 경전을 가까이 하면 행복하리라. 물 맛도 먹어봐야 안다. 이 경전을 읽으며 육조혜능이 돼 열린 마음으로 열린 세상을 자유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의발을 전하는 육조[五法傳衣]  
〈육조 단경〉에 보면 말이 열려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을 쉽게 표현하는 것이다. 행자 혜능이 깨달음에 이른 과정은 아름답다. 스승인 오조 흥인의 파격적이고 탁월한 안목 또한 아름답다.

혜능 스님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다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5조 흥인이 머무는 사찰에서 수행을 시작한다. 그는 방앗간에서 행자생활을 하면서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맑은 거울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끼지 않게 하라”는 신수의 계승을 들었다.

혜능은 이 계승을 듣고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맑은 거울 또한 티끌이 없는 것, 부처의 성품은 본래 깨끗하기를 어느 곳에 티끌 먼지 있을까보나”라고 답했다.

5조 흥인은 행자의 깨달음을 인정했다. 이제 행자에 불과한 그를 흥인은 불러 돌만의 한차례 점검을 마친 후 달마로부터 전해 내려온 의발을 전했다. 6조 혜능의 탄생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조임자가 그따위 말을 하나”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인 한국 불교는 말치로 강그리 때려 부수 새로 만들어야 한다. 승려들은 고정관념을 갖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법상에 앉는다. 한국불교는 썩어빠졌다.

장삼도 마찬가지로. 더운 여름 더우면 최소한의 옷만 입어도 된다. 지금 한국불교가 형식과 권위주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지식인들은 불교를 외면한다. 승려들이 재가자에게 기와불사 같은 불사만 말하기 때문이다. 절 10곳을 짓고 탐을 100개 짓고 마는 것은 외형적인 팽창일 뿐이다. 안으로는 썩어 무드러진 불교다.

출가 20~30년 된 사람을 구참자라고 한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관습의 벽에 갇혀있다. 구참자에게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주위에서 “출가한지 20~30년 된 수행자에게 말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고시원에서 10~20년을 공부하고도 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인생이 실패작인 것과 같다. 그런데 선방에서는 오랜 수행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통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불교는 초등학생이 대학원생이 척하면서 죽 비소리에 맞춰 잘못된 것을 반복할 뿐이다.

주지 취임식은 또 무엇인가. 삼국시대에 주지 취임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주지 이력을 보면 10만개 성만, 20만개 성만이라고 한다. 한국 불교는 지식인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 조계종은 〈육조 단경〉을 귀감으로 삼으면서도 육조혜능과 달리 연륜과 서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불교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봉

## 불기 2555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수련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중흥종법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기 종도수련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불기2555년 9월 1일 ~ 9월 3일 (음 8월4~8월6일)
- 입 재 : 불기2555(2011)년 9월 1일 목 오후 3시  
(입소등록 당일 오후3시까지 접수)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개인비품
- 장 소 : 다보수련원 0431833-7789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392-10)
-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02) 952-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011-9704-3247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 대승종 중앙 종의회  
대승종 교구총무원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여여 무여 합장

행

#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